언론사: 국민일보-6-1002.txt

제목: 부산대병원 ‘정밀의학, 선진의료 실천’ 캐치프레이즈 선포  
날짜: 20170106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6093844001  
ID: 01100201.201701060938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2017년 시무식에서 ‘정밀의학, 선진의료 실천을 위한 새로운 도약’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br/>이에 따라 병원 측은 기존의 캐치프레이즈 ‘Vision 2020,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올해 캐치프레이즈를 부제롤 사용하기로 했다. <br/> <br/>기존 캐치프레이즈 ‘Vision 2020,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을 보여주는 여러 산업 중, 의료 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국내를 넘어 세계 유수병원을 경쟁상대로 삼고 노력하자는 각오와 바람이 담겨있다. <br/> <br/>부제 ‘정밀의학, 선진의료 실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은 병원에서 추구하는 정밀의학 및 선진의료의 실천과 발전을 위해 새로 도약하자는 다짐의 표현이다. <br/> <br/>정밀의학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br/> <br/>정밀의학의 추진과 유전체학(OMICS)을 기반으로한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환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r/> <br/>현재 의료계는 정밀의학을 통해 앞으로 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이창훈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span class='quot0'>복지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2차 지정사업 진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주요 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체계, 인공지능 등을 융복합적으로 진료현장에 적용시켜 선진의료와 정밀의료의 기반을 구축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6-1003.txt

제목: [사설] 정치인들 말 좀 가려서 하라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5213155002  
ID: 01100201.20170105213155002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암 덩어리’ ‘똥을 싸놓고’ ‘정치고 나발이고’ ‘일본 같았으면 할복한다’. 뒷골목 깡패의 말이 아니다. 친박 지도부를 향한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당을 이 지경으로 내몰았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안다. 또한 백번 옳은 말이다. 당을 떠나는 것을 넘어 정계를 은퇴하라고 해도 과한 요구는 아니다. 하지만 감정 섞인 욕설이나 다름없다. 정치지도자의 발언이라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부끄럽다. 아직 인격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아들 딸 손자들이 듣고 배울까 겁난다. 집안에서도 이런 언사를 쓰는지 모르지만 목사 신분을 가진 정치지도자 언어치고는 상스럽다. 시정잡배와 뭐가 다른가.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의 대응도 오십보백보다. 그는 인 비대위원장을 ‘거짓말쟁이 성직자’ ‘독선자’라고 규정하고 “이제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본질은 뒷전이고 말싸움만 이어진다. <br/> <br/>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정계은퇴를 주장한 것과 관련, “안 지사의 언행을 보면 530년 전 한명회가 떠오른다. 문재인의 한명회가 돼 폐족에서 왕족으로 부활하기 위해 문 전 대표를 엄호하겠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복역한 사실까지 거론했다. 비록 손 전 지사의 정계은퇴를 주장한 안 지사의 발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명회 운운하고 감옥 갔다 온 과거를 언급한 김 비대위원장의 대응도 옳지는 않다. <br/> <br/> 정치인들의 막말이 논란이 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얼마 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회 청문의원들은 ‘머리 굴리지 마라’ ‘닥치세요, 멍텅구리’ 등 막말과 조롱을 해 저질 청문회라는 지적과 함께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심지어 새누리당을 탈당 뒤 개혁보수신당으로 간 하태경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촛불에 타 죽고 싶은가”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욕을 먹더라도 주목 받는 게 좋다는 것인가. 볼썽사납고 저질스럽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말에도 언격(言格)이 있다. 아무리 정치판의 언어라고 해도 너무 품격이 없다.

언론사: 국민일보-6-1004.txt

제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성과… 경제적 고통 줄이는 데 기여, ‘암 보장’ 여전히 미흡  
날짜: 20170105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5201555001  
ID: 01100201.20170105201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4년간 실시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었던 고가의 수술과 약제비, 진단 검사 등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83개 항목 6147억원의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암질환의 경우 일부 고가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지거나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br/> <br/>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중 암질환 부분에 대한 보장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은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보건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질환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항암제에 대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항암제 보험등재 현황과 속도는 OECD 국가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CCA 분석에 의하면 국내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난 6년간(2009∼2014년) 새로 허가 받은 항암 신약의 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 62%였으나, 우리나라는 29%였다는 것이다.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 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보험 등재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 8개월(245일) 정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약 1년 8개월(601일) 소요되면서 2.5배 정도 더디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또한 KCC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암환자 설문조사 결과, 암환자 10명 중 9명은 비급여 항암제 비용에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95%), 10명 중 8명은 비급여 항암 치료를 위한 비용 마련이 어렵다(83%)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은 치료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br/> <br/>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20조원의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과 담배세 증세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br/> <br/>송병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6-1005.txt

제목: [토론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4년… 향후 과제는 “항암제·신규 약제, 환자의 접근성 높여야”  
날짜: 20170105  
기자: 정리=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5201455001  
ID: 01100201.20170105201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 22일 국민일보 11층 그레이스홀에서 35차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방송토론회를 열었다. <br/> <br/>◇주제=4대 중중질환 보장성 강화 4년 평가 '-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br/> <br/>◇참석자=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br/> <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br/> <br/>◇연출=홍현기 쿠키건강TV PD <br/> <br/>◇방송=1월 6일(금) 오후 7시20분 <br/> <br/>-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br/> <br/>◇고형우=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다. 4대 중증질환에 진단 및 치료, 약제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것으로, 급여확대를 목표로 우선으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총 672항목이 적용됐고, 비급여에서 7657억원 가량이 경감됐다. 2013∼2014년 진단목적 초음파검사, 캡슐내시경,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등 125항목이 확대됐다. 2015년에는 유방재건술, 양성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유전자검사 134종, 폐암치료제 급여 등 258항목 확대됐고, 2016년에는 수면내시경 등 289항목이 급여 확대됐다. <br/> <br/> ◇안기종=4대 중증질환 정책에 대해 환자들은 체감을 하는 정도는 약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전자검사 건강보험 급여가 됐다. 사실 비급여 유전자 검사는 몇십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당장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비용이 줄어드니까 확대 된 것을 크게 느낀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면내시경이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환자들은 보장성강화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3∼4년 추진됐던 것은 항암제나 희귀질환 약제를 제외하면 환자들이 실제 (보장성강화를)느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br/> <br/> <br/> <br/>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성과와 한계는? <br/> <br/> ◇김봉석=2013년부터 올해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서 암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많이 확대됐다.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같은 경우 400만원 정도의 부담이 25만원으로 줄기도 했다. 한국임상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암환자의 현황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실제 평균 비용이 2800만원 정도이고, 그 중 약 70%가 비급여 약제에 대한 비용이었다. 아직도 환자나 가족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br/> <br/> ◇고형우=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2016년까지 실시됐기 때문에 효과를 평가하려면 2018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보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장률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에 1.2%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는 5년만에 상승한 수치다. 2016년 3월에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정특례대상 120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br/> ◇김윤=기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서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제 효과가 날 것인가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보장률과 관련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였다. 2009년 이후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2014년에 1.2% 상승했다. 보장률 상승의 경우 소위 의학적 비급여라고 부르는 약, 재료, 수술에서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서 생긴 효과가 아니고, 대부분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보장률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2년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7.7%였고, 2014년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77.7%였다. 사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로 끌어들이면,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난다. 따라서 항목별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으로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결국 보장률 을 올리기 어렵다.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br/> <br/> ◇김봉석=암질환의 경우 진단, 치료, 수술, 조기검진은 매우 잘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암 진단의 경우 보험이 늘었다. 따라서 암 치료를 위한 진단, 수술 등에 있어 90% 이상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보장률이)90%도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미흡한 점이라고 본다. 4대 중증질환 내에서도 급여가 안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새로 개발된 신약들의 효과성은 분명히 입증되고 있고 실제 외국에서는 다 보험적용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약제들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인가 봐야 한다. 효과가 있는 신약에 대해 빨리 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올릴 수 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신약에 대한 보험적용이 빨리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허가 이후에는 빨리 급여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br/> <br/> ◇안기종=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경우 급여가 안되는 문제보다는 약의 가격 때문에 급여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제약사는 약값을 높게 받으려고 하고 정부는 가급적 약값을 낮게 주려고 하는 갈등 관계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비급여 기간이 길어져 본인부담상한제나 중증질환 특례제도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된 약제, 치료재료, 치료행위의 경우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를 하는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 <br/> <br/> <br/> <br/> -항암제나 신규 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br/> <br/> ◇안기종=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암치료를 받는 그룹은 2부류다. 한 그룹은 경제적 여유가 되고 실손 보험이 있어서 신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잘 받는 경우고, 다른 한 그룹의 환자들은 살고 싶지만 감당이 안되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다. 최근에 일부 제약사는 비급여 고가의 치료제에 대해 비급여 약제비를 환자들에게 30%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개월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br/> <br/> ◇김봉석=실제 포기하는 환자가 있다.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한 후 비용을 이야기하면 환자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답한다. 한국임상암학회 설문조사에서도 암치료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경제적 부담’이 37%로 1위였다.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심리적 부담, 치료에 대한 기대는 매우 좋아진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커지게 된다. <br/> <br/> ◇고형우=복지부도 환자의 신규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보험평가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약가 협상이나 경제성평가 면제절차를 신설했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크게 바뀐 것이 경제성평가 기준 가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까지만 비용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가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최근에는 항암제 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1억원이 투입되는 약제도 있다. 최근 개발된 면역항암제의 경우 급여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도 임상적 유용성을 가장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비용효과성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br/> <br/> ◇김윤=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암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다른 암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암에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 세 번째는 높아지는 항암제 가격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되는 고가항암제와 외국에서 급여가 되는 고가항암제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급여를 하고 있는지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서 정말 비용효과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인지를 1을 만점으로 지수화했다. 9개 국가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였다. 1등인 스웨덴이 0.75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0.34점을 받았다. 이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항암제들이 너무 많이 급여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비용효과적인 항암제들이 급여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적인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비용효과적인 (항암제에)급여화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항암제 급여화 또는 전체 암환자 진료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쓸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가 항암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바깥에 항암제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항암제 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면 혜택도 주고 전체 보험 재정을 파산시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을 것이고, 저소득층은 일종의 기금(항암제만 지원하는) 지원을 받아서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r/> <br/> ◇김봉석=환자의 입장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신약의 보험등재율은 2015년 말 현재 29%다. OECD 국가의 평균은 63%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CCA)이 조사한 내용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경제성평가하고 비용효과성을 살펴야 하겠지만, 실제 여러 실정상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 질병 자체의 빈도수가 낮거나 특정 암에 대해서 경제성평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미리 보험등재를 해주고 사후 재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br/> <br/> <br/> <br/> -마무리 발언 <br/> <br/> ◇김봉석=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에는 너무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약들의 효과가 증명되는 상황이다. 조금 더 빨리 환자가 이런 약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극복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길이 다가왔으면 한다. <br/> <br/> ◇안기종=현재 의료현장에서는 건강보험보다는 실손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비급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실손보험을 해지해도 될 정도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r/> <br/> ◇김윤=항암제 급여가 필요하다. 항암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암 보장성도 강화된다. 특히 비급여 풍선효과를 없애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 20조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개혁을 하는데 사용해야 20년 후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한다. <br/> <br/> ◇고형우=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은 2016년 끝났지만,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은 2018년까지 지속된다. 이에 보장성강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약제의 경우에도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면역항암제 등 재정 소요가 큰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보장성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br/> <br/>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6-1006.txt

제목: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중증환자 부담 줄이자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5200755001  
ID: 01100201.20170105200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박근혜 정부의 중점 대선 공약인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개선 및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3년 6월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큰 폭의 제도개선 후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학적 근거 있는 비급여의 상당수도 건강보험 급여화 되고 있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완료시점인 2017년 말에는 건강보험 보장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 그러나 2010년 77.8%, 2011년 76.1%, 2012년 77.8%, 2013년 77.5%, 2014년 77.7% 수준으로 76∼77% 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2017년 말경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율 증가 속도보다 고가의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비급여 영역의 개발 및 확대 속도가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br/> <br/>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 추진도 고민해야 한다. <br/> <br/> 이런 상황에 눈여겨 볼 제도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재난적 의료비’를 의료비 지출이 가계 총지출의 10∼40% 수준을 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의 중증질환으로 투병중인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br/> <br/> 원래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중증질환 환자들의 호응이 좋고, 환자단체들의 기간연장 요구가 계속되어 2016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다. 2017년에는 종료될 운명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해 기사회생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2014년에는 84.6%, 2015년에는 85.7%, 2016년에는 86.7%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br/> <br/> 최근 한 달 약값이 천만 원이 넘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일부 신의료기술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못지않게 고가다. 최근 이러한 고가의 비급여 약제나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그나마 줄어든 것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천만 원까지 비급여 약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br/> <br/>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비급여의 블랙홀 때문에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율 곡선은 위로 치솟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계층 하락 위험에 있는 중산층과 이미 최하층이 되어 있는 극빈자의 의료비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할 적기(適期)이다. <br/> <br/> 대상 질환도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과 같이 일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이 정부의 복금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료비 지원을 하는 민간 복지단체의 기금,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비급여 약제비 지원사업 기금,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중에서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는 환급금 등 다양한 재원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br/> <br/>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사: 국민일보-6-1007.txt

제목: [인터뷰]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 “진료비 때문에 가정파탄 나서야… 공공의료 강화 절실”  
날짜: 20170105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5192455001  
ID: 01100201.20170105192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br/> <br/>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은 “<span class='quot0'>무상의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공짜 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용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갖고도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주연구원 원장에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출신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했던 김용익 전 의원을 기용했다. <br/> <br/>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내년 대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국민 공통 관심사인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거는 기대도 뜨겁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싱크탱크에 김용익 원장이 임명되며, 그가 준비하는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1야당의 보건의료 공약 핵심으로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폐지’, ‘부문 간 협조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복지 도입 등이 있다. <br/> <br/> 의사 출신인 그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발자취는 꽤나 ‘진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원장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다보니 ‘진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의사나, 제약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라는 뜻은 아니다”며 “의사들이 평범하게 진료행위를 하면 무리가 없고, 국민들도 진료비 부담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br/> <br/> 그에게 박근혜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주문하자, “보건의료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다”며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 것이 아니고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만 보장하면, 다른 중증의 환자들은 차별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제는 전 질환에 거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span>”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국가에서 운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결국 돈이 문제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건보료를 많이 내고 본인부담을 적게 할 것이냐, 혹은 건보료를 덜 내고 본인부담금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라며 “국민들의 약 70∼80% 건보료를 내면서, 추가로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비급여는 갈수록 늘고, 국가에 내는 건보료로 진료비 부담이 해결이 안되니까 민간보험에 의지하는 것”이라며 “유럽 등의 선진국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목돈의 진료비가 안나가는 구조다. 건보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장성을 넓힌다면 의료비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br/> <br/> 원격의료 도입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특정 정책이 시행될 때는 어떤 목적에서 추진되는 가를 살피면 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답은 나와있다. 현행 원격의료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빅데이터 등의 정보 체계,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특정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 건강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답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건강의료를 활용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꼬집었다. <br/> <br/> 끝으로 그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시 말해, ‘직장 보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직장이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면 주로 병원을 ‘강남구’에서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는 “<span class='quot0'>거주 중심의 지역사회 개념의 보건방식으로는 접근이 안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 보건’ 등의 맞춤형 헬스케어 방식을 도입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을 도입해야 진정한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복지부 뿐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학교 보건, 직장 보건,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 등 국민들이 평생에 거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6-1008.txt

제목: “국민건강만을 위하는 2017년을 만들어 가자”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5180656001  
ID: 01100201.2017010518065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지난해는 많은 이슈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는 보건의료계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제도는 특정인의 비선진료를 가능케 하는 허점도 드러냈고, 돈이 아까워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에 2017년에는 정부와 국회, 현장속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국민건강 증진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각계의 희망메시지를 전해본다. <br/> <br/> <br/> <br/>“국민의 위대함에 절로 머리 숙여지는 엄숙한 한해를 지나 어느덧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닭은 예로부터 새벽을 알리고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2017년, 붉은 닭의 의미가 이처럼 맞아떨어진 해는 없을 것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br/> <br/> <br/> <br/>“<span class='quot0'>민생의 최우선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의 실현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되는 인구위기에 대비한 세밀하고 꼼꼼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span>”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br/> <br/> <br/> <br/>“올해의 고사성어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는 뜻의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했다.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br/> <br/> <br/> <br/>“보건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보건의료 R&D 신투자 영역발굴, 한국의료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br/> <br/>-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br/> <br/> <br/> <br/>“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br/> <br/>-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br/> <br/> <br/> <br/>“<span class='quot0'>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span>”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br/> <br/> <br/> <br/>“<span class='quot0'>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예측가능한 정책과 산업정책적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희망한다</span>” -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br/> <br/> <br/> <br/>“KRPIA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경제성평가제도의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업 즉,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이상석 KRPIA 부회장 <br/> <br/> <br/> <br/>“<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는 우리 국민의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생존율은 높이며 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생존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암 정복을 향한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span>” <br/> <br/>-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br/> <br/> <br/> <br/>“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2017년이다. 북한주민들이 인간답게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의료인들의 따뜻한 애정과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br/> <br/>- 김영훈 고대안암병원 심장내과 교수

언론사: 국민일보-6-1009.txt

제목: 아주대병원 조성원 교수팀, 간경변증 환자 간암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  
날짜: 2017010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4104444001  
ID: 01100201.201701041044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변할 위험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국내 의료진이 열었다. <br/> <br/>아주대병원 간센터 소화기내과 조성원( <br/>사진) 조효정, 영상의학과 김보현 교수 연구팀은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 악성도 예측 임상 모델’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초음파나 CT 검사로 간암 발생 여부를 스크리닝 해야 한다. <br/> <br/>간암 스크리닝 도중 정확히 진단 내리기 어려운 간 내 결절을 종종 발견하는데, 크기가 작은 조기 간암은 결절처럼 보이는 양성 병변이나 암 전단계 병변인 재생 결절, 이형성 결절 등과 감별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로 MRI나 조직검사를 해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br/> <br/>또 재생 결절이나 이형성 결절은 발견 당시에는 간암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화하는 암 전단계 병변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 진단이 애매한 간 내 결절의 악성도를 예측하고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br/> <br/>연구팀은 아주대병원에서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CT 검사를 시행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발견된 간 내 결절이 시간에 따라 악성화하는 비율과 악성도와 관련이 있어보이는 요소를 조사,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결절 발견 당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간 내 결절의 크기가 큰 경우 △ CT 소견상 동맥기에 밝게 보이는 경우 △혈중 알부민 농도가 낮은 경우 △혈중 알파 태아 단백 수치(alph-feto protein)가 높은 경우 △B형 간염 지표 중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이전 간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구팀은 다시 이들 위험 인자를 이용하여 간암 발생 위험률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도출했다. 이어 그 계산식을 바탕으로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을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간암 위험도 예측 임상 모델을 도출해냈다. <br/> <br/>조성원 교수는 “<span class='quot0'>간경변증 환자의 간에서 새로 발견되는 결절은 악성화 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기 힘들어 실제로 많은 의사가 진단이나 치료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간암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은 환자의 나이, 결절 크기 등 진료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산식을 적용하여 결절의 악성화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어 진료실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6-1010.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다학제통합진료 암환자 96%가 만족  
날짜: 2017010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4102544001  
ID: 01100201.20170104102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몬시뇰)은 전공 분야가 다른 전문의들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가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br/> <br/> <br/>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다학제 협의진료팀을 신설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를 실시 중이다(사진). 다학제 통합진료는 암환자와 보호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녀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문과목이 다른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암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진료 시스템이다. 진단부터 검사, 수술, 치료 일정을 결정하는 협의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검사 및 절차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 <br/>인천성모병원은 이 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점을 확인할 목적으로 지난해 3~12월 다학제 통합진료를 받은 암환자 및 보호자 4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으로 평가했다. <br/> <br/>조사 항목은 다학제 통합진료와 관련 ▲사전 설명 여부 ▲전반적인 만족도와 함께, 세부항목으로 ▲진료실 장소 및 분위기 ▲진료 방식 ▲진료 시간 ▲설명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분했다. <br/> <br/>그 결과 사전 설명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응답자 모두 ‘매우 만족’을 선택했다. 이어 세부항목에서는 진료실 장소 및 분위기 100%, 진료 방식 97%, 진료 시간 및 설명에 대한 이해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91%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br/> <br/>오세정 인천성모병원 다학제 협의진료팀 위원장 “<span class='quot0'>환자 개인을 중심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진료가 가능해 환자와 의료진 간에 신뢰를 형성,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span>”고 분석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6-1011.txt

제목: 1평 남짓 쪽방의 한파 녹인 사랑… 인천쪽방상담소 15년째 나눔 이야기  
날짜: 20170104  
기자: 인천=김아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4205955001  
ID: 01100201.201701042059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인천시 남구 송림로에 있는 한 여인숙 건물. 지난달 22일 인천쪽방상담소 직원들과 방문한 허름한 갈색 4층 건물의 분위기는 을씨년스러웠다. 복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화장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각각 1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90여명은 각 층에 설치된 공동화장실과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난방이 되지 않은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출신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등이 월 10여만원을 내고 이곳에 거주한다. <br/> <br/> 박종숙(60) 인천쪽방상담소장이 1층에 사는 이연자(가명·69)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며 “할머니, 아침식사 하셨어요? 오늘은 드릴 게 참 많네요”라고 인사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작은 냉장고, TV, 옷 수납장 등이 비교적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br/> <br/> 세 차례 암 수술을 해 평소 거동이 불편한 이 할머니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박 소장은 할머니에게 방수 장갑과 모자, 생필품 박스, 방한복, 이불 등을 전달했다. 할머니는 “보라색 이불이 색깔도 예쁘고 때도 덜 타겠구먼. 바쁜데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했다. <br/> <br/> 상담소 직원들은 다른 여섯 가정에 라면과 생필품 박스 등을 전달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였다. 건물 정문 앞에서 박 소장을 본 60대 초반의 이모씨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상담소에 들러 뭐 좀 갖다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혼 후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한 그는 약 10년 전 이곳에 정착한 뒤 두문불출했다. 인천쪽방상담소 직원들과 꾸준히 교제하다 2∼3년 전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부턴 표정도 밝아지고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br/> <br/> 15년째 쪽방촌 사역을 하는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대부분 무연고인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생필품을 주러 왔다가 가끔 숨진 사람을 발견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래도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립 의지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지켜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인천쪽방상담소는 이준모 목사와 아내 김영선 목사가 공동 목회하는 인천 해인교회가 설립한 ‘내일을여는집’ 산하 단체다. 내일을여는집에는 노숙인쉼터, 사회적기업 재활용센터, 푸드뱅크, 해인지역아동센터 등 총 8개 단체가 있다. 2001년 설립된 인천쪽방상담소는 의료 및 취업 상담,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쪽방 주민들을 돕고 있다. <br/> <br/> 박 소장을 비롯해 상담소 직원 3명은 모두 해인교회 성도들이다. 인천쪽방상담소는 지난달 인천 계산동과 만석동 등에 사는 332세대 쪽방촌 주민을 방문해 쌀과 김치 연탄 등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늘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다.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다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다. 잦은 야근을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봐야 하고 무거운 짐을 전달하느라 체력적인 소모도 많다. <br/> <br/> 남병철(45) 상담소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환경이라 사명감 없이는 젊은 직원이 버티기 힘든데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어 뒤늦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힘들지만 재밌다. 사회복지가 적성에 딱 맞는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br/> <br/>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span>”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아영 기자singforyou@kmib.co.kr, 사진=김보연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6-1012.txt

제목: ‘1평 쪽방촌’ 한파 녹인 사랑… 인천쪽방상담소 15년 나눔이야기  
날짜: 20170103  
기자: 인천=김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3170844001  
ID: 01100201.20170103170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인천시 남구 송림로에 있는 한 여인숙 건물. 지난달 22일 인천쪽방상담소 직원들과 방문한 허름한 갈색 4층 건물의 분위기는 을씨년스러웠다. 복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화장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각각 1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90여명은 각 층에 설치된 공동화장실과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난방이 되지 않은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출신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등이 월 10여만원을 내고 이곳에 거주한다. <br/> <br/> <br/> <br/>박종숙(60) 인천쪽방상담소장이 1층에 사는 이연자(가명·69)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며 “할머니, 아침식사 하셨어요? 오늘은 드릴 게 참 많네요”라고 인사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작은 냉장고, TV, 옷 수납장 등이 비교적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br/> <br/>세 차례 암 수술을 해 평소 거동이 불편한 이 할머니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박 소장은 할머니에게 방수 장갑과 모자, 생필품 박스, 방한복, 이불 등을 전달했다. 할머니는 “보라색 이불이 색깔도 예쁘고 때도 덜 타겠구먼. 바쁜데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했다. <br/> <br/>상담소 직원들은 다른 여섯 가정에 라면과 생필품 박스 등을 전달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였다. 건물 정문 앞에서 박 소장을 본 60대 초반의 이모씨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상담소에 들러 뭐 좀 갖다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혼 후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한 그는 약 10년 전 이곳에 정착한 뒤 두문불출했다. 인천쪽방상담소 직원들과 꾸준히 교제하다 2~3년 전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부턴 표정도 밝아지고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br/> <br/>15년째 쪽방촌 사역을 하는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대부분 무연고인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생필품을 주러 왔다가 가끔 숨진 사람을 발견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래도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립 의지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지켜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인천쪽방상담소는 이준모 목사와 아내 김영선 목사가 공동 목회하는 인천 해인교회가 설립한 ‘내일을여는집’ 산하 단체다. 내일을여는집에는 노숙인쉼터, 사회적기업 재활용센터, 푸드뱅크, 해인지역아동센터 등 총 8개 단체가 있다. 2001년 설립된 인천쪽방상담소는 의료 및 취업 상담,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쪽방 주민들을 돕고 있다. <br/> <br/> <br/> <br/>박 소장을 비롯해 상담소 직원 3명은 모두 해인교회 성도들이다. 인천쪽방상담소는 지난달 인천 계산동과 만석동 등에 사는 332세대 쪽방촌 주민을 방문해 쌀과 김치 연탄 등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늘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다.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다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다. 잦은 야근을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봐야 하고 무거운 짐을 전달하느라 체력적인 소모도 많다. <br/> <br/>남병철(45) 상담소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환경이라 사명감 없이는 젊은 직원이 버티기 힘든데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어 뒤늦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힘들지만 재밌다. 사회복지가 적성에 딱 맞는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br/> <br/>박 소장은 “<span class='quot0'>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인천=김아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6-1013.txt

제목: 평창 봉평면 해오름자연요양병원, 해발 700m 청정지대서 암 환자 회복 도와  
날짜: 2017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3040155002  
ID: 01100201.201701030401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할 있게 돕는 병원이 있다. 바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변 해발 700m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해오름자연요양병원(공동원장 고무삼·정창조)이다. 제2 영동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br/> <br/> 의료법인 유안의료재단(이사장 고화성)은 2일, “<span class='quot0'>자연의학요법, 면역요법, 심신이완요법, 요가, 명상해독치료, 고주파 온열 암 치료 등 양·한방 통합의학을 집중 시술하는 해오름자연요양병원을 지난 해 8월 개원, 암 환자들의 조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 이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병동에 암 환자 6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사진). 주변의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황토벽돌 병실과 편백나무 침대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암 절제수술 후 또는 6∼8회의 정규 항암화학요법 프로그램을 마친 암 환자들이 언제든지 입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장점이다. <br/> <br/> 특히 약 10㎞에 이르는 봉평 흥정천을 따라 조성해놓은 산책로는 사시사철 심산유곡 원시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연살균제 피톤치드와 맑은 산소로 가득해 암 퇴치에 이로운 산림욕과 유산소운동 코스로 꼭 맞춤이다. <br/> <br/> 해오름자연요양병원은 이 외에도 조기 암 극복을 위해 요가, 명상, 풍욕, 웃음치료, 무농약·유기농 채소식과 주스요법 등 자연의학요법을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br/> <br/> 고무삼 해오름자연요양병원 공동원장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한 암 치료와 무농약 자연·식이요법, 맞춤형 한방치료 등으로 구성한 개인맞춤 암 요양 프로그램을 통해 암 환자들이 최대한 빨리 건강을 회복,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병원의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6-1014.txt

제목: [기고-정진엽] 암과 더불어 사는 삶  
날짜: 2017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3173155001  
ID: 01100201.2017010317315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국민 35명 중 1명. 2014년 암 등록통계를 통해 발표된 우리 국민의 암 유병률이다. 국민 146만명이 암을 이겨내거나 치료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br/> <br/>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암에 걸리는 것이 이른바 ‘사형선고’였던 시절은 지났다.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기준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69%인 미국, 62.1%인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암은 널리 발생하고 있지만, 이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고 하겠다. <br/> <br/>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암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암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덕분이다. 한국인의 5대 암으로 꼽히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부터 시작하여 2005년 대장암을 마지막으로 전 국민 암 검진 체계를 갖추었다. <br/> <br/> 정부는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10년 주기로 암 정복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01년에 국립암센터를 개원한 이래 국제공인 암 등록통계 산출과 5대 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사업 시행,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제정 및 홍보, 저소득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및 확산 등의 성과가 있었다. <br/> <br/> 지난해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할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암 관리정책이 조기검진과 치료 위주의 정책에 집중했다면 제3차 계획은 치료 후 생존자와 말기암 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도 주목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br/> <br/> 이에 따라 생존자의 의료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위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올해 1차적으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지지센터 3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여 정보·통계의 수집 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br/> <br/>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병동 중심으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로 이뤄진 호스피스 팀이 가정이나 일반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방문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아를 위한 호스피스 모델도 올해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 <br/> <br/> 이와 더불어 조기검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30갑년 이상의 흡연 이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갑을 30년 동안 피웠거나, 하루 평균 2갑을 15년 동안 피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2017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암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암등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적 규모의 암 감시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br/> <br/>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시·군·구별 암 발생통계를 발표해 지역별 암 관리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특이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신문, 방송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령별로 맞춤형 암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br/> <br/> 2017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시작해 보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피하는 등 평범한 건강수칙만 지키면 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br/> <br/>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사: 국민일보-6-1015.txt

제목: [역경의 열매] 윤경숙 <8> 꿈을 잃었던 아이들, 모두 주님의 아픈 손가락  
날짜: 20170102  
기자: 정리=전병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2205655001  
ID: 01100201.20170102205655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한국조리사관학교에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인 학생들이 아주 많다. 고3학생으로 위탁교육을 온 P양은 20년 베테랑 교사들도 경직되게 만들었다. 분칠한 듯한 화장을 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미리 본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상상 이상이었다. 상담은 할 만큼 했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우리는 많이 안아주고 기도해줬다. <br/> <br/> 그러자 본인 입으로 아픈 가족사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어른인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었다. 우린 같이 엉엉 울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자 이 학생의 마음에 작은 꽃이 피었다. 한 선생님의 생일날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와서 어설픈 목소리로 “선생님 생일축하해요”라고 했다. <br/> <br/> 이 학생에게 수료식날 선물을 줬다. 전도의 씨앗을 심고자하는 마음이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이사장님, 이거 저한테 왜 주셨어요”라고 묻는다. 세상에, 그 나이가 되도록 고맙다는 인사를 해본 적이 없었단다. 그 질문이 고맙다는 말이었다. 나는 화장실 복도에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줬다. 나는 문제아를 본 적이 없다. 문제 부모만 수도 없이 봤다. <br/> <br/> 한국조리사관학교에는 ‘반전의 삶’을 사는 학생들이 많다. 이 지면을 통해 몇몇 학생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 <br/> <br/> 김대섭 학생은 31세인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간호사직(금연 상담사)을 그만두고 조리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애원한 끝에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윤지현 학생은 기계자동차공학과를 3년간 다녔지만 이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이 끔찍하다면서 방황을 거듭한 끝에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25살에 한국조리사관학교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난 대학시절의 학점들을 인정받고 1년여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br/> <br/> 학교에는 질병을 극복하고 조리사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도 많다. 최재혁 학생은 백혈병 투병이 너무 힘들어 자신처럼 암에 걸린 환우들을 위로하는 셰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관학교에 왔다. ‘반안면 왜소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도 있다. <br/> <br/> 한때 호주에서 노숙까지 했던 이주용 학생은 올해 미국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존슨앤웨일즈 대학교 조리외식서비스 경영학부를 지원해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고 했다. <br/> <br/>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반항적인 삶을 살다가 검정고시를 거쳐 우리 사관학교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학생도 있다. <br/> <br/> ‘꼴찌의 반란’이라고 할 만한 아이들. 고3 위탁교육에 참가한 아이들은 조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교 교장선생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만찬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온다. “가가 가가?” ‘그 애가 그 애냐’는 경상도 사투리다. 아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이다. <br/> <br/> 성적 최하위, 학교에서 잠만 자던 학생들, 꿈이라는 단어를 잊었던 학생들,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던 아이들. 모두 주님의 아픈 손가락들이다. <br/> <br/> 제빵 기술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관학교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믿고 따라 와주는 학생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br/> <br/>정리=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6-1016.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한쪽 작은 귀가 부끄러워 자신감없이 살다가 부활을 알고 최고 삶으로  
날짜: 20170102  
기자: 정리=김무정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2204355001  
ID: 01100201.201701022043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나는 한쪽 귀가 작은 소이증과 안면 비대칭으로 말할 때 입이 틀어지는 외형적 이상으로 어려서부터 힘든 생활을 했다. 아이들은 “반쪽 귀, 반쪽 귀”하며 놀렸고, 버스나 기차를 탈 때도 귀가 가려지는 창가 쪽을 찾아 앉았다. 자꾸 얼굴이 비뚤어지다보니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 점점 소외되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다. <br/> <br/> 이렇게 ‘놀림’과 ‘눌림’의 삶이었지만 유일한 기쁨은 교회 다니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놀리지 않아 마음이 편해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주일 학교 교사도 하며 모든 일을 다 했다. 봉사로는 교회에서 나를 따라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br/> <br/> 그러다 직장 후배 동료를 만났는데 기쁜 소식이라며 자신 있게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나도 신앙생활 좀 해 봤거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하며 비웃어 넘겼다. 그렇지만 이 친구의 확신 있는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갔고 시간을 정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br/> <br/> 후배는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근원적인 죄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결국 “나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거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뭔지 나도 알고 있다”며 짜증을 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일서 3장16절을 같이 읽고 나서 느닷없이 “형님, 저는 형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뭐야. 목숨이 열 개라도 되냐”고 답했다. 정말 기가 막혔다. <br/> <br/> 또 어떤 날에는 “형님은 구원 받은걸 어떻게 믿어”라고 묻기에 나는 자신있게 “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라고 답해줬다. 후배가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믿어”라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뭐”라고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고 믿어”라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잖아”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라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줬다. <br/> <br/> “<span class='quot0'>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어.</span>” 확신에 찬 그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선명하게 보여 주시는 것 같았다. “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드디어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됐다. <br/> <br/> 교회에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다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군인들을 보고 “저 지옥에 떨어질 놈”하며 저주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 당신을 짓밟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놔두세요.” 그 순간 성령께서 로마 군병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 나는 하나님께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니까 소이증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대화를 하다가 입이 틀어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말기 암인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 가셨고, 나처럼 청력이 낮고 말이 어눌한 동생도 예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게 됐다. 자신감 없이 살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br/> <br/>정리=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6-1017.txt

제목: “치매예방에는 민요배우기가 최고” 국악자격평가협회 회원 1만명 시대 열어  
날짜: 20170101  
기자: 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1194144001  
ID: 01100201.201701011941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70~80대 노인들이 민요를 배우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br/> <br/>1일 사단법인 한국기초학력평가원 국악자격평가협회(대표 박은택, www.kmse.kr)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70~80대 노인들이 민요를 배우면서 삶의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이다. <br/> <br/>특히 암에 걸린 노인들도 민요를 배우면서 10곡 정도를 암기할 정도로 변해 자녀들이 어머니의 노래를 녹화해두고 부모사후 보고 싶을 때 동영상을 보겠다는 의향을 밝힐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r/> <br/>이같은 일은 지난 13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악자격평가를 실시해온 국악자격평가협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배출한 회원만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박은택 국악자격평가협회 대표는 “<span class='quot0'>지난 10년간 대표를 맡아 노인들에게 국악자격평가를 실시하면서 국악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종로3가 국악거리 낙원동 계성빌딩에 자리잡은 협회의 국악강의실을 활용해 국악보급운동을 본격화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지부는 노인들에게 민요교실을 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전국 아리랑 문화예술제에 나가 큰 상을 받았으며, 영정사진보다 호응이 좋은 동영상 보급운동을 전개해 노인이 있는 가정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br/> <br/>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